

변천하는 사회와 도서관문화의 재조명

정보화시대의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역할과 기능

李斗榮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은 도서관시설·도서관자료·도서관직원·도서관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보자료의 관리와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서관의 시설·자료·직원·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들과 관련되는 모든 행위양식과 사고양식을 포함한 적응기제로서의 도서관 생활양식 일체를 도서관문화라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시설의 유무, 필요한 수만큼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도서관의 시설과 관련하여 특정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정보서비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소장 장서와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적·양적 문제; 도서관 조직의 합리적 구성; 도서관 예산의 적절성;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내지는 전문직으로서의 사명의식과 봉사정신;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의 다양성; 타도서관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성 여부 등이 도서관문화의 사회지표론적 측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도서관문화의 지표론적 정의

도서관문화의 지표론적 정의의 필요성은 도서관의 가치와 도서관목표에 비추어 지금의 도서관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통계계열 및 그 이외의 모든 형태의 증거로 도서관문화를 발전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나아가서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도서관 이용자들이 보는 도서관의 이미지,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도서관자료 이용의 생활화, 독서의 생활화 등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집단 고유의 정신적·물질적·지적·정서적 특성들의 총체가 도서관문화의 정의에 역시 포함된다.

관종별로 설정하고 있는 기존의 도서관설치기준·시설기준·장서기준·전문직 자격요건·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직제기준 등 단위도서관과 관련한 지표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도서관정책, 사회에 대한 도서관 이미지와 역할에 이르기까지 사회변화에 따른 도서관문화의 재조명이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의 시각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업무처리의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수서업무와 관련하여 볼



이두영교수.

때 전통적인 인쇄자료나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에 대한 주문 및 입수업무는 전자출판이나 전자자료에 대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입수자료의 정리부문에 있어서도 OCLC와 같은 공동편목 시스템이 실현될 경우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전자자료들은 어느 중앙기관에 의해 분류편목과 색인작업, 초록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도서관에서의 이중적 작업이 필요없게 될 것이다.

참고서비스에 있어서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서지정보의 검색·사실정보의 검색·전문검색을 비롯해 CD-ROM화 된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등 과거 인쇄매체에 의존했던 제한된 정보검색의 폭이 혁신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시대의 도서관과 사서

이와같이 전자형태의 자료가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는 물론, 정보의 원격송신과 수신에 용이해지고 있는 전자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은 지금의 도서관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성이 크게 작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늘날 도서관업무 수행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한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학부전공을 살릴 수 있는 대학원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우리도 예비사서들의 자질을 근원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도서관학과에 대한 인가제도를 도입할 필요

비디오텍스나 컴퓨터를 통한

자료검색 등의 정보서비스가

다른 정보기관이나 산업체에 의해

확산된다면 미래의 도서관은 문헌보존

기능이 주가 되는 창고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도서관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성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도서관학과 졸업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이들이 도서관에 진출하여 실제업무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들 졸업생들이 그런 자질을 갖추고 현장에 임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시대의 사서는 도서관이 다루어야 할 각종 기록매체의 특성과 기록내용의 특성 그리고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데, 현재 대학의 교과과정은 물론 실습기자재·전공교수진의 확보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서는 전문단체의 학술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증거로 학위·학술발표회의 참여·주제발표·연구실적과 함께 전문단체에서의 적극적인 학술활동이 요구된다.

우리의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은 과거나 지금에 있어서나 그 사회적 인식도가 거의 전무한 현실속에 놓여있는데, 국가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육성·발전은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963년 제정된 이후 의원입법의 과정을 통해 1987년 개정된 도서관법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도서관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도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개정법의 후속조치로서 교육법·공무원 임용령·조세감면 규제법 등 관계법령들을 개정해야 함에도 착수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어느 부서가 도서관행정을 담당하게

되든 또한번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정부가 도서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창고'일 수는 없는 미래의 도서관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곧 국가발전의 원천적 자료가 되며, 모든 사회활동의 기본이 되는 의사결정·문제해결·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시에 공급해주는 도서관의 기능이 이 시대의 개인이나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의 창조와 수용자 사이의 매개자로서, 창조활동의 지원과 국민적 문화향유를 위한 촉매자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속에서 행정담당부서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정보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고, 예산지원 및 자금조성, 도서관협력 체제의 확립과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국내외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도서관 전문인력의 확보, 다큐멘테이션의 표준화,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전자도서관의 구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오늘날 도서관이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 외에 앞으로 도래할 전자도서관의 기능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도서관이 전자형태의 정보서비스 제공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이 아닌 다른 정보산업체들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상품화하여 다양한 전자배포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줄 것으로 예측된다.

비디오텍스·CD-ROM검색 등의 정보서비스가 다른 정보기관이나 정보산업체에 의해 확산된다면 도서관은 박물관이나 리포지토리(Repositories)와 같이 문헌보존 기능이 주가 되는 창고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창고의 이미지로 남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